

SOCIETY

2025년 5월 8일 목요일

“의료 접근성 취약...‘공공심야약국’ 늘려주세요”

문흥식 전 5·18부상자회장
‘5월 단체 대여금 소송’ 패소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참사를 일으킨 절거 사업에 관여해 형사처벌을 받은 문흥식 전 5·18구속부상자회장이 5월 공법 단체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 단독 채송원 부장판사는 문흥식 전 5·18구속부상자회장이 5·18민주화운동 공법 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을 기각했다.

문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5·18구속부상자회 회장을 역임하던 당시 부족한 재정을 위해 1억1900만원을 5·18구속부상자회에 대여했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문씨가 해당 금액을 5·18구속부상자회에 대여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는 문씨가 회장을 지내던 기간 동안 121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 주유비, 식대, 경조사비 등의 명목으로 구속부상자회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2516만원을 이체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채송원 부장판사는 “원고가 구속부상자회의 회장 직함으로 사회활동·경제활동을 함으로써 이 사건 송금액을 초과하는 유·무형적 이득을 얻을 수 있었기에 이 송금액은 원고가 구속부상자회에 기부한 돈일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광주 의약품 판매·조제 증가세...지난해 5만건 돌파
시, 올해 6→8곳 확대...편의 최우선 고려 신규 지정

“택시로 20분 이동해서야 자사제를 살 수 있었습니다. 집 근처에도 공공심야약국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문을 여는 공공심야약국 운영 확대를 요구하는 지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7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공공심야약국은 지난 2022년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시작된 시범사업으로, 의약품 구매 시 어려움을 겪는 심야 시간대에 약사들이 의약품 판매하고 복약지도도 도와 경증 환자가 응급실을 찾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

고 있다.

이를 통해 감기약, 복통약, 피임약, 외상 관련 응급약 등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생활 응급장구’이자 ‘공공보건의 거점’이 되고 있다.

광주에서 운영 중인 공공심야약국은 오렌지약국(동구), 종원종로약국(서구), 나래약국(남구), 해오름은누리약국(남구), 백담약국(북구), 라온약국(광산구) 등 6곳이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광주 공공심야약국에서는 의약품 판매·조제 10만8694건, 전화 상담 7276건 등이 이뤄졌다.

화순전남대병원, K-바이오헬스 전진기지로 ‘도약’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아시아 암 진료와 연구의 전진기지로 도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7일 화순전남대병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추진하고 전남바이오팀이 주관하는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에 핵심 참여 기관으로 함께 한다.

사업은 총 3년간 약 32억원이 투입되며 창업기업 발굴, 기술개발, 임상, 인증, 시

험평가 등 바이오 헬스 전 주기에 걸친 지원 체계를 구축해 지역 바이오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최근 열린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 착수보고회’에 참석,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전남바이오팀원과 협력해 지역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세부적으로 2022년 2만7183건(의약품 판매·조제 2만5842건, 전화상담 1341건), 2023년 3만4023건(의약품 판매·조제 3만 1235건, 전화상담 2788건), 2024년 5만4686건(의약품 판매·조제 5만 1617건, 전화상담 3147건) 등으로 문의·조치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공공심야약국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불만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공공심야약국이 구별로 1곳(남구 2곳)뿐이기 때문이다. 해당 시간 대중교통인 시내버스 미운영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달 29일 오후 11시부터 종원종로약국에는 의약품 찾는 문의 전화가 잇따랐다. 황급히 약사를 찾는 시민들의 발걸음도 상당했다.

차량으로 수십여km를 내달린 전남 지역 민도 있었다.

약사 A씨는 “작년 어린이날, 여수에서 다친 아이를 데리고 온 가족이 있었다”며 “당시 보호자가 ‘여수에 문을 연 약국이 없어 이곳까지 왔다’고 토로했다”고 회상했다.

광주시 소통플랫폼 ‘광주온(ON)’에는 공공심야약국 운영 확대를 바라는 게시물이 등록되기도 했다.

작성자는 “오후 10시 이후에 의약품이 필요한 시민들의 약국 이용이 어려워 경증환자들이 응급실로 몰리는 등 의료비 부담과 응급실 과밀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서·북·광산구의 경우 접근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구 밀집지역·교통 불편지

역·의료 취약지역을 우선 선정해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제안은 작성 이틀 만에 106개의 공감을 얻었다.

광주시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올해 내로 공공심야약국 2곳을 추가 지정, 총 8곳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2년 주기로 광주시약사회의 공모를 통해 지원 약국을 모집하고, 선정 위원회가 약국 위치, 접근성, 인력 운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하고 있다.

광주시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선정 기준은 매년 지역 수요에 맞게 조정하고 있다”며 “올해는 시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신규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홍민 기자 yhb9792@gwangnam.co.kr



자활 장터와 함께하는 착한 소비 자활생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7일 광주 서구청 1층 로비에서 열린 자활 장터를 찾은 공무원 및 주민들이 물건을 고르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전남교육청, 美 트로이대학에 ‘K-에듀센터’ 개소

글로벌 미래교육 박람회 결실...인재 양성 거점 기대
공동교육과정·산학 연계 인턴십·교사 연수 등 운영

전남교육청이 미국 앨라배마주 트로이대학에 ‘전남교육청 K-에듀센터’(이하 K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K센터는 2024년 여수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교육 박람회’ 후속 사업으로 추진됐다. 이곳은 전남 학생들이 세계를 무대로 배우는 ‘글로벌 교육 플랫폼’이자,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상징하는 거점으로 운영된다.

△‘글로벌 교육 플랫폼’ 확장

K센터 설립의 시작점은 2019년 전남체육중·고등학교와 트로이대학교 간 업무협약 체결로 거슬러 올라간다.

양 기관의 업무협약은 전국체육대회 수상 등 실적 위주의 엘리트 학생선수 수를 대상으로 한 국제 교류 프로그램에서, 학업 의지, 인성, 언어능력 등 다양한 성장 가능성을 갖춘 학생들에게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이에 따라 교류 프로그램 역시 단순한 체험을 넘어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한층 다양화했다. 스포츠, 역사, 문화, 언어 교육은 물론, 현지 한인 3세외의 교류, 트로이대학교 교수진이 운영하는 글로벌 리더십 세미나 등 실질적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성장의 폭을 넓혔다.

특히 2024년 5월 개최된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교육 박람회’를 계기로 전남교육청과 트로이대학교 간 협력

관계는 전남 전체 교육 영역으로 전면 확장됐다.

양 기관은 이후 약 1년간 긴밀한 협의와 준비 과정을 거쳐, 이번에 K센터를 개소하게 됐다.

앞서 지난 4월21일 서울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9회 세계한인체육회장대회’에 참석한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K센터 개소를 공개 표명한 바 있다.

K센터, 글로벌 미래교육 거점 기대 K센터는 미국 트로이대학교 국제학센터 내에 문을 열고, 전남교육청 소속 직원 3명이 상주하며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본격화한다.

트로이대학교는 1887년 설립된 미국 남부의 주립 종합대학으로, 약 60개국 이상의 다양한 유학생이 함께 공부하는 글로벌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스포츠마케팅, 행정, 경영, 회계 등 분야에서 미국 내 우수 대학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130개 이상의 100% 온라인 학위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어 국제화에 강점을 지닌 대학으로 손꼽힌다.

K센터에서는 △체육계열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글로벌 교사 역량 강화 연수 프로그램 △국내외 산학 연계 인턴십 프로그램 △스포츠·역사·문화 체험 프로그램 △전남미래교육재단 ‘꿈 실현금’ 조성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한다. 특히 앨라배마주와 인접한 조지아주



K-에듀센터에서 근무하는 전남교육청 소속 직원들과 트로이대학 교수들이 국제학생센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에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다수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어, 학생들은 첨단 자동차 생산 현장에서 스마트 제조, 품질 관리, 마케팅 등 실무 경험을 쌓으며 미래 진로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매일 ‘K-웨이브 데이’를 운영하며 한글, 한복, 한식, 태권도 등 한국 문화를 현지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일부 프로그램은 전남 학생들이 직접 기획·운영에 참여해 세계시민 역량을 키울 예정이다.

△전남-앨라배마 ‘의’ 정신 연대 학생 간 문화 교류뿐 아니라, 전남과 앨라배마는 ‘정의와 용기’, ‘공동체 정신’의 역사적 가치 위에서 더욱 깊은 연대를 잇는다.

앨라배마는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셀마 행진 등 흑인 민권운동의 중심지였으며, 전남은 동학농민운동, 항일독립운동, 5·18 민주화운동 등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지역이다.

김인수 기자 joinsu@gwangnam.co.kr

꽃·식물 (꽃다발, 꽃바구니, 꽃박스, 화환)
공간연출 (행사, 포토존, 웨딩연출)
부케드라이 (부케액자, 부케무드등, 부케랜들)
귀피디제 (한살리오를라세111)

010. 6411. 7975

m.blog.naver.com/qwer445566 @ instagram.com/flower_buni

광주 동구 제봉로 140번길 4

전남교육청, 美 트로이대학에 ‘K-에듀센터’ 개소

글로벌 미래교육 박람회 결실...인재 양성 거점 기대 공동교육과정·산학 연계 인턴십·교사 연수 등 운영

전남교육청이 미국 앨라배마주 트로이대학에 ‘전남교육청 K-에듀센터’(이하 K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K센터는 2024년 여수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교육 박람회’ 후속 사업으로 추진됐다. 이곳은 전남 학생들이 세계를 무대로 배우는 ‘글로벌 교육 플랫폼’이자,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상징하는 거점으로 운영된다.

△‘글로벌 교육 플랫폼’ 확장

K센터 설립의 시작점은 2019년 전남체육중·고등학교와 트로이대학교 간 업무협약 체결로 거슬러 올라간다.

양 기관의 업무협약은 전국체육대회 수상 등 실적 위주의 엘리트 학생선수 수를 대상으로 한 국제 교류 프로그램에서, 학업 의지, 인성, 언어능력 등 다양한 성장 가능성을 갖춘 학생들에게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이에 따라 교류 프로그램 역시 단순한 체험을 넘어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한층 다양화했다. 스포츠, 역사, 문화, 언어 교육은 물론, 현지 한인 3세외의 교류, 트로이대학교 교수진이 운영하는 글로벌 리더십 세미나 등 실질적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성장의 폭을 넓혔다.

특히 2024년 5월 개최된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교육 박람회’를 계기로 전남교육청과 트로이대학교 간 협력

관계는 전남 전체 교육 영역으로 전면 확장됐다.

양 기관은 이후 약 1년간 긴밀한 협의와 준비 과정을 거쳐, 이번에 K센터를 개소하게 됐다.

앞서 지난 4월21일 서울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9회 세계한인체육회장대회’에 참석한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K센터 개소를 공개 표명한 바 있다.

K센터, 글로벌 미래교육 거점 기대 K센터는 미국 트로이대학교 국제학센터 내에 문을 열고, 전남교육청 소속 직원 3명이 상주하며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본격화한다.

트로이대학교는 1887년 설립된 미국 남부의 주립 종합대학으로, 약 60개국 이상의 다양한 유학생이 함께 공부하는 글로벌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스포츠마케팅, 행정, 경영, 회계 등 분야에서 미국 내 우수 대학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130개 이상의 100% 온라인 학위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어 국제화에 강점을 지닌 대학으로 손꼽힌다.

K센터에서는 △체육계열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글로벌 교사 역량 강화 연수 프로그램 △국내외 산학 연계 인턴십 프로그램 △스포츠·역사·문화 체험 프로그램 △전남미래교육재단 ‘꿈 실현금’ 조성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한다. 특히 앨라배마주와 인접한 조지아주

에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다수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어, 학생들은 첨단 자동차 생산 현장에서 스마트 제조, 품질 관리, 마케팅 등 실무 경험을 쌓으며 미래 진로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매일 ‘K-웨이브 데이’를 운영하며 한글, 한복, 한식, 태권도 등 한국 문화를 현지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일부 프로그램은 전남 학생들이 직접 기획·운영에 참여해 세계시민 역량을 키울 예정이다.

△전남-앨라배마 ‘의’ 정신 연대 학생 간 문화 교류뿐 아니라, 전남과 앨라배마는 ‘정의와 용기’, ‘공동체 정신’의 역사적 가치 위에서 더욱 깊은 연대를 잇는다.

앨라배마는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셀마 행진 등 흑인 민권운동의 중심지였으며, 전남은 동학농민운동, 항일독립운동, 5·18 민주화운동 등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지역이다.

김인수 기자 joinsu@gwangnam.co.kr